

#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탄력

###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 한수원 등 5개 기업과 업무 협약 에타 조사 연구 협력 및 정보교류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5개 기업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업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차 협약을 체결한 22곳을 더하면 협약 기관-기업은 27곳으로 늘어났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저장·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융합단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에타조사 연구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전북도(새만금)를 중심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타타당성조사 연구에 상호역량 결집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전북도(새만금) 수소 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RE100(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캠페인) 등과 연계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산 새만금이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정읍 경찰·군, 폭발물 대테러 합동훈련

정읍경찰은 21일 정읍시 고부면 입석터널에서 폭발물대테러 사건을 가상해 경·군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읍경찰서 112타격대와 지역경찰, 제8098부대 4대대 등이 참여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초동조치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록 정읍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순찰 강화,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복분자 재배 확대·유통구조 대폭 개선

### 생산능가 등 참석...활성화 간담회

고창군이 올해 복분자 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복분자 생산능가회와 복분자 가공업체, 수매기관(농협)이 참여한 '복분자 활성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 대표적 면역·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창복분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지난해 복분자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식재 농가에 생산장려금과 수매장려금을 포함해 9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복분자 관련 산업집적화단지인 '복분자산업특구' (아산·심원·부안면 일원 508만8404㎡)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복분자 고사 원인을 찾기 위해 국가기관의 연구와 재배기술 교육, 국립산림과학원의 '복분자팔기' 품종에 대한 기술 이전 및 복분자팔기 무병묘 생산기술 관련 정보 공유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창 황토에서 자란 복분자는 향과 맛이 뛰어나며, 면역력 증진과 원기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복분자주와 복분자발사믹식초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

실제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출과 특구지역 내 기업의 꾸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익산시, 악취 없는 친환경도시 종합계획 시행

### 배출시설 점검 방지시설 개선

익산시는 악취 없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시는 '익산악취24'에 신고된 악취민원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악취배출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대표 악취유형은 분뇨와 가축분뇨 계열로 전체 민원의 총 7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가축분뇨 냄새 36.8%, 분뇨 냄새 26.8%, 분뇨+화학약품 냄새 8.9%, 분뇨+매캐한 냄새 71%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분뇨와 가축분뇨계열 악취는 71.8%에서 79.8%로 증가한 반면 화학약품 계열은 27.3%에서 22%로, 음식물 냄새가 4.6%에서 1.5%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악취배출시설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복합악취 시료 채취와 실시간 악취 측정장량 성분 분석을 통해 사업장별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권 분뇨악취의 원인지 규명을 위해 시행 중인 '익산 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이 다음달 말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도심 인근의 민원이 잦은 사업장과 24시간 조업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또 고질적·반복적으로 범



익산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악취배출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적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검토해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부서가 노력한 결과 사업장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환경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책으로 체계적 악취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관련법을 위반한 61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악취 저감에 일조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대학 신입생에 장학금

### 취준생엔 구직 지원금

### 정읍시 100만원씩 지원

정읍시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과 비진학 취업준비생들에게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읍시는 민선 7기 들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비롯해 대학생활 준비자금 마련이나 비진학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중 학생 본인이나 부모 중 1명이 정읍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도 포함된다.

정읍시는 신청자의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집중신청을 받아 2~3개월 내에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에 살고 있는 대학 신입생과 구직지원자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며 "지역의 인재를 훌륭히 키워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복분자 생산자·가공업체·수매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분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 남원시, 111억 투입 주민숙원사업 364건 추진

남원시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남원시는 올해 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해 마을 기반시설,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 등 각 읍면동 364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 만족도와 생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시는 현재 사업부서의 자체 설계팀과 설계

용역업체 등을 통해 대상지 현지답사와 측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도 30개소 피해지역의 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을 준비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적극 추진해 영농철과 장마철 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   |   |   |   |   |   |   |
|---|---|---|---|---|---|---|
| <p>개인사업자<br/>• 개인사업자<br/>• 소상공인<br/>• 중소기업</p> <p>문의전화 266-4150</p> | <p>자영업자<br/>• 자영업자<br/>• 소상공인<br/>• 중소기업</p> <p>문의전화 573-4150</p> | <p>공공기관<br/>• 공공기관<br/>• 공공기관<br/>• 공공기관</p> <p>문의전화 528-4150</p> | <p>매곡지역<br/>• 매곡지역<br/>• 매곡지역<br/>• 매곡지역</p> <p>문의전화 572-4150</p> | <p>침단지<br/>• 침단지<br/>• 침단지<br/>• 침단지</p> <p>문의전화 576-4150</p> | <p>운암지역<br/>• 운암지역<br/>• 운암지역<br/>• 운암지역</p> <p>문의전화 513-4150</p> | <p>동광지역<br/>• 동광지역<br/>• 동광지역<br/>• 동광지역</p> <p>문의전화 264-4150</p> |
|---|---|---|---|---|---|---|